무차대회란?

출 재가자 · 상하 구별없이 불법 논하는 자리

무차선법회는 출가자와 재가자, 상하귀천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불법을 논하는 자리다. "무차선법회의 차(遮)자만 봐도 그 의미를 알수 있다"는 진제 스님의 말처럼 무차선법회는 일체 막힘이 없는 법회를 의미한다.

깨달음을 이룬 선지식을 모시고 법문을 진행한 후 깨달음의 경지를 문답으로 주고받는 법거량으로 이어지는 무차선법회. 한국에서는 근대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가 1912년 한암 스님에 의해 금강산 건봉사에서 처음 열렸으며, 1998년과 2000년 백양사에서 두차례 열린바 있다.

'불성(佛性)의 실체는 있는가' '진정한 나, 즉 참사람은 무엇인가'라는 1, 2차 무차선회의 주제를 이어 이번 국제 무차선법회는 '부처님의 심인법 선양과 참사람의 인간성 회복'을 주제로 세계 평화와 남북 평화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원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일본 불교계의 거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선불교 역사상 처음 열리는 국제 무차선법회여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 동화사 ·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 중국을 대표하는 조주원 백림선사 방장 정혜 스님,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대표 종현 스님이 각각 30분씩 설법하고 20분동안 사부대중과의 법거량을 갖는 순서로 진행된다.

1만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할 예정인데 특히 이번 법회에는 제방선원의 선객들이 대거 참석, 법회의 위상을 높힐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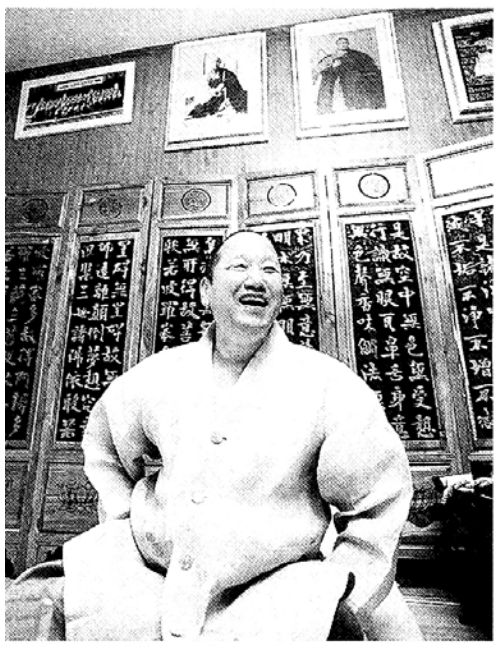
깨달은 살림살이"

불교를 지향하고 있다. 그
어디를 가도 선(禪)을 최상
란 어렵지 않고 선을 수행
되고 있다. 반면, 한국 불
승되지 못한데 기인한다는
있는 실정이다. 오도의 순
를 불러 뿌리는 없는 무성

의가 높은 가운데서도 부산
을 선양하고 선수행의 가치
禪) 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내려오는 법맥을 이은 진제
! 한국 선수행 체계를 정립



◇10월 20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릴 국제 무차선법회를 준비 중인 진제 스님.



◇진제 스님은 불법에는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없으므로 재가자들 또한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일상중 일어나는 생각
화두로 삼아 참선하면
사심 저절로 없어져

창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선불교가 보여주는 현실은 과연 선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회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선불교가 갖고 있는 오류와 문제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여겨지는데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선불교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십시오.

"지금 한국불교, 특히 선불교의 병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압니다. 그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불교도 물질적 풍요만을 좇고 외형적인 형상을 좇다 보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서만을 좇아 중노릇을 한다든지, 산사에서 모든 물질을 갖추고 한가로이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다 못난 중노릇입니다. 모든 것에 초연하고 도를 깨닫겠다는 철두철미한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이는 부처님 국토에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를 알고자 하는 이는 첫째 발심을 하고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바른 법을 지도 받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른 길잡이를 만나지 못하면 허공보다 넓은 진리의 세계에서 최고봉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선에서 찾고자 한다면 이제 한국 선불교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구체적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제 무차선법회가 갖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선불교가 안고 있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무차선법회라는 큰 법회를 여는 것입니다. 3국의 선의 거장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허심탄회하게 전 세계의 안목을 보고 듣게 해서 새로운 발심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국의 선사들의 깨달은 살림살이를 듣고 더욱 신심을 내고 발심을 해서 도(道)의 문으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이 법회의 목적입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말입니다. 이는 도심에 해운정사를 세우고 시민선방을 열었던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무차선법회를 통해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새로운 발심을 일으켜 바른 수행을 이어가는 공부인이 많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에는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없지만, 출가자와 재가자의 수행 방식은 실제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재가자들이 생활 가운데 선 수행을 이어가며 참다운 공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출가자는 혼자의 몸이니 홀가분하고, 재가자는 처자가 있어서 생활을 해야 하니 번거롭지요. 그러나 최상승법에는 출가 재가의 구분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발심을 해서 도를 깨닫겠다는 확고한 신심이 자리잡았느냐가 문제지, 머리를 깎고 산사에서 수도한다고 특출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 되게 화두를 참구했느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일상생활 직분에 충실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가지가지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로지 화두 참구에 전력할 것 같으면 마음의 지혜가 계발됩니다. 시간이나 여건을 탓하지 말고 일어나는 생각을 화두로 돌리면 사심(邪心)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몸뚱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는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씨름을 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줄 모르고 낮이 오는지 밤이 오는지도 모르고 화두 일념에만 푹 빠져 흐르고 흐르게 되는 과정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일념이 지속되어서 홀연히 마음땅心地을 돌이키는 것이 화두를 깨치는 때입니다. 모든 불자들이 화두를 타파해 진리대로 생활하고 더욱 많은 이들을 선의 세계로 이끄는 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글=천미희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휘광스님 (2)



휘광스님은 열정이 많고 부지런한 분이다. 많은 스님들이 포교의 현장에서 또는 불사를 일으킴에 그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지만, 휘광스님은 특히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후배스님을 돕는데 주저가 없고 헌신적이다.

몇년전 한 후배스님이 미국행을 결심했다. 부족한 공부와 미국포교의 원력이 어우러져 인연을 맺은 것이다. 차근히 준비를 했지만 마음이 급했던 그 스님은 종교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여행비자를 이용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먼저 짐을 옮겨 놓겠다고 눈에 띄게 많은 양의 책을 가져간 그 스님은 공항에서 제지를 받게 되었다. 종교비자 발급을 마무리 짓지 않고 들어간 까닭에 불법체류 목적자로 오해받아 입국을 거부당해 공항에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입국거부로 인해 기존의 여행비자도 취소당하고 이미 신청한 종교비자를 받는 일도 힘들게 되었다. 가뜩이나 힘든 종교비자 발급을 더 어렵게 만들고 만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시 무불선원에서 함께 지내던



미국인 현각스님과 상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하지만 미국 스님의 입장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수덕사 주지스님까지 나서서 결국 그 어렵다는 종교비자를 받아 그 스님이 미국행 비행기에 다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음으로 양으로 휘광스님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뉴욕에서 절을 운영하며 포교에 수고하고 계시는 휘광스님은 잘 알지도 못하는 후배스님을 위해 사찰의 재정 및 신도, 시설현황에 관한 복잡하고도 적지 않은 서류들을 주저없이 보내주었고, 여러 번의 전화통화를 통해 쉼없이 격려해주었다. 결국 그 인연으로 후배스님은 휘광스님이 계신 뉴욕 불광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미국입국 후에도 어려움 없이 정착이 가능하도록 거처와 학교, 운전면허취득 등의 세세한 제반문제를 적극적으로 돕고 계신다.

휘광스님 자신이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여건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스님은 귀국길에 오르기보다는 뜻을 돌려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절을 창건하여 교민과 현지인 포교에 투신한지 벌써 10년을 넘기고 있다.

나는 95년말부터 달라스에 있던 수덕사 포교당에 인연이 되어 6개월 정도를 살게 되었다. 마침 1년여의 동남아 불교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오래지 않았고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한 철 정진하며 좀더 폭넓은 경험을 갖기 원했던 까닭이었다. 하지만 6개월의 미국생활은 10여년의 출가생활 중 가장 고달프고 어려운 시기였다. 그 넓다고 하는 미국 땅은 한정된 공간과 폐쇄된 인간관계만을 허락하였고, 내게 주어진 일은 조석예불, 기도와 일요법회뿐이었다. 도량청소와 간혹 있는 교민불자와의 식사자리 외에는 생필품을 구입하러 나가는 것조차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한 달 두 달 갑갑하고 안타까운 시간이 지나갈 때 우연히 만난 인쇄물에서 휘광스님의 뉴욕 연락처를 얻게 되었다. 풀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한 듯 꽉 막혔던 가슴이 풀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스님께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전화에서 들리는 휘광스님의 목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이었다. 스님은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미국은 어려운 곳이야, 하지만 출가 승려가 마음만 먹으면 헤쳐가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힘내서 열심히 살아" 격려해 주셨다. 그 후 근처의 대학을 찾아 어학코스도 다니

공부 · 후배돕기 남다른 열정

전화 한통화 美생활 큰 위안

고, 교민신문에 매주 기고도 하며 미국생활의 활기를 얻게 된 것은 휘광스님이 한 통화 전화로 채워준 기운 때문이었다.

스님 자신이 원하던 공부를 마치지 못해서인지 휘광스님은 후배스님들을 보살피는데 각별하다. 이미 몇 분의 스님들이 스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정착했으며, 지금도 스님의 도량 불광사는 미국에서 공부를 원하는 스님 또는 여행을 하는 스님이나 불자들에게 늘 개방돼 있다.

지난해 우연히 조계사 앞에서 휘광스님을 뵈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니 담담하게 맞으시며 뭘 하느냐고 물었다. 포교원에서 소임을 본다고 하니 종단일도 좋지만 젊을 때 공부해야 한다며 언제라도 공부하겠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다. 또 누구라도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보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으로 후배들과 불자들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휘광스님만의 특출한 멋이다.

기독교를 통하지 않으면 정착이 거의 불가능한 미국, 먼 이국에서 불자로 스스로를 지켜가기도, 스님으로 수행하기도 쉽지 않은 그 곳, 또 스님이 원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귀국해 더 좋은 여건에서 정진 할 수 있음에도 휘광스님은 그 곳에서 포교에 전념하고 계신다.

▩서산 부석사 주지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게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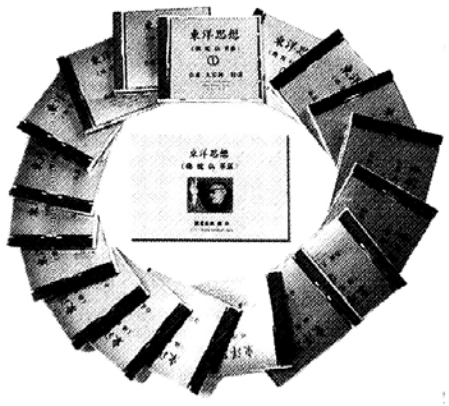
- 현대해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탄허대종사

동양사상특강CD안내

탄허 대종사의 깊고 넓고 높은 강의를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탄허대종사께서 1977년~1982년에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18장의 CD에 담아 보급 합니다.



◈ 가 격 : 18장 1세트 126,000원(교재 1권 포함)
◈ 제작 · 보급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4-4
건대빌딩 본관 202호 교림출판사
◈ Tel 02)733-3334 / H · P 018)733-3334
02)733-3359
http: www.tanheo.com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 층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헌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임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맹지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